



첼시 선수들이 30일(한국시간) 포르투 드라강 경기장에서 벌어진 2020~2021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맨체스터시티를 1-0으로 꺾고 우승한 뒤 '빅이어'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첼시의 9년만이자 통산 2번째 이 대회 정상 정복이다. 포르투(포르투갈) | AP뉴시스

‘투헬의 매직’...첼시, UCL 정상 맨시티 1-0 제압...9년 만에 유럽 챔피언

첼시가 맨체스터시티(이상 잉글랜드)를 물리치고 9년 만에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정상에 올랐다.

첼시는 30일(한국시간) 포르투갈 포르투의 드라강 경기장에서 열린 2020~2021시즌 UCL 결승전에서 카이 하베르츠의 결승골에 힘입어 맨체스터시티를 1-0으로 따돌렸다. 하베르츠는 전반 42분 메이슨 마운트의 침투 패스를 받아 골키퍼까지 제치고 결승골을 뽑았다.

이로써 첼시는 통산 2번째 UCL 우승을 달성했다. 첼시는 9년 전인 2011~2012시즌 UCL 결승에서 바이에른 뮌헨(독일)을 승부차기 끝에 제압하고 처음으로 대회 우승컵 ‘빅이어’를 들어올린 바 있다.

파리 생제르맹(프랑스)을 이끈 지난 시즌 UCL 준우승에 그친 토마스 투헬 첼시 감독은 1년 만에 팀을 바퀴 결승에 올라 정상 정복의 꿈을 이뤘다. 현지 언론에선 ‘투헬의 매직’으로 칭했다. 투헬 감독은 올 1월 첼시 부임 이후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4강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UCL 결승 등 맨체스터시티와 3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첼시는 우승 상금 1900만 유로(약 258억 원)를 추가했다. 첼시가 벌어들인 이 대회 누적 총상금은 약 8000만 유로(1086억 원)에 달한다.

맨체스터시티는 통산 첫 UCL 우승에 실패했다. 올 시즌 통산 5번째 EPL 우승을 비롯해 카라바오컵(리그 컵) 우승도 차지해 더블(2관왕)을 이룬 맨체스터시티는 트레블(3관왕)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앞서 FC바르셀로나(스페인)를 이기고 2008~2009시즌과 2010~2011시즌 UCL 결승에 올라 모두 우승했던 펠 과르디올라 맨체스터시티 감독은 자신의 3번째 UCL 결승에서 첫 패배를 안았다.

한편 UEFA가 선정한 UCL 결승전 최우수선수(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는 결승골을 넣은 하베르츠가 아닌 미드필더 은골로 칸테였다. UEFA는 칸테에 대해 “미드필드 진영에서 볼이 있든 없든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칸테는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UCL 4강 1·2차전에 이어 결승전까지 모두 최우수선수에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

3년 동행 끝...이재성, 승격 무산 홀슈타인 떠난다

3년의 동행이 아쉬움 속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재성(29·홀슈타인 킬)이 30일(한국시간) 홀슈타인 슈타디온에서 벌어진 쾰른FC와 2020~2021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승강 플레이오프(PO) 2차전 홈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고 득점포까지 가동했으나, 팀의 1-5 패배를 막지 못했다.

분데스리가(2부) 3위로 홈&어웨이 방식의 승강 PO에 오른 홀슈타인 킬은 27일 원정 1차전에서 1-0으로 이겨 구단 역사상 첫 분데스리가 1부 승격을 꿈꿨으나, 홈 2차전 완패로 모든 게 무산됐다.

결과는 안타깝지만 이재성의 현신은 눈부셨다. 홀슈타인 킬의 핵심 미드필더인 이재성은 원정 1차전에서 후반 14분 시몬 로렌츠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했고, 홈 2차전에선 0-1 끌려가던 전반 4분 동점골을 터뜨렸다. 정규리그 33경기에서 5골·6도움을 올린 그는 PO에서 1골·1도움을 추가해 올 시즌을 8골·7도움(포탈 2골 포함)으로 마쳤다.

홀슈타인 킬은 ‘1부 승격’을 전제로 공격 2선부터 미드필드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이재성을 잔류시키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홀슈타인 킬의 승격이 불발되면서 계약연장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까워졌다.

이미 적잖은 러브콜을 받고 있다. 분데스리가 중·상위 클럽 2~3곳,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하위 클럽과 직·간접적 접촉이 진행 중이다. FA(자유계약선수) 신분으로 풀려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 점도 유리하다. 남정현 기자

부진의 늪 전복, 어디까지 내려갈래?



K리그 최강으로 군림해온 전북 현대가 5월 이후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어느덧 리그에선 7경기 무승, 16강에서 탈락이 확정된 FA컵까지 포함하면 8경기 무승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9일 인천 유나이티드와 원정경기에선 후반 추가시간 터진 쿠니모토의 동점골로 간신히 패배를 모면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8경기 무승...처참한 기록만 줄줄이

인천전 극장골로 무승부...연패 면해 FA컵 총격매 후 재기결의 효과 없어 김상식 감독 “부상자가 많아서” 변명

K리그1(1부) 사상 첫 4연패, 국내 최다 8회 무승에 빛나는 전북 현대의 악몽이 계속됐다. 또 승수를 쌓지 못했다.

전북이 연일 새 역사를 쓰고 있다. 부정적 의미다. 홈 무패, 연승 등 긍정적 요소들이 지워지고 처참한 기록들만 늘어나고 있다. 리그에선 홈 2연패가 포함된 8년만의 3연패, 9년만의 6경기 무승(3무3패)을 맞본 데 이어 26일 FA컵 16강전에서 K3리그 양주시민구단에 승부차기로 무너졌다.

전북은 29일 인천전용경기장에서 벌

어진 인천 유나이티드와 ‘하나원큐 K리그1 2021’ 19라운드 원정경기에서도 웃지 못했다. 0-1 뒤진 후반 추가시간 쿠니모토의 ‘극장골’로 간신히 1-1 무승부를 거뒀다. 객관적 전력, 상대 전적 등 모든 면에서 앞섰으나 ‘4연패’만 면했을 뿐, FA컵까지 포함해 8경기 무승(5무3패·승부차기는 무승부)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상식 전북 감독은 FA컵 탈락 후 몇몇 선수들과 면담했다. 여기서 ‘전북 정신’이 언급됐고, 어렵게 쌓은 자부심을 무너트리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럼에도 반전은 없었다. 그 사이 제주 유나이티드와 원정경기에서 2-1로 이긴 선두 울산 현대(승점 36)와 간격은 더 벌어졌다. 이제 덜 치른 1경기를 이기더라도 승점

3점이 뒤진다.

인천의 노림수는 분명했다. 상대의 급한 마음, FA컵 연장승부를 펼친 체력적 여파를 활용하려고 했다. 맞대결을 앞두고 조성환 인천 감독은 “빠른 실점을 피하면 찬스가 있다. 단단한 수비로 (쫓기는) 전북의 조급증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전이 통했다. 무의미한 볼 돌리기만 반복한 전북에 인천이 한방을 먼저 날렸다. 전반 42분 전북 수비수 4명이 볼 배급과 공간을 막지 못한 사이, 인천의 오른쪽을 맡은 22세 이하(U-22) 구본철이 골네트를 흔들었다.

여유가 생긴 인천은 후반전을 시작하며 ‘특급 날개’ 네게바를 투입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려질 상대의 측면을 공략

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인천의 공격은 훨씬 날카로워졌다. 전북은 한교원을 투입해 측면에 힘을 실은 뒤 구스타보를 내세워 투톱을 이뤘다.

후반전 막판 인천 무고사가 쓰러졌을 때도 공격을 전개해 여유를 받을 만큼 다급했던 전북은 후반 49분에는 골 맛을 봤다. 막판 총공세에서 일류첸코의 패스를 쿠니모토가 마무리하면서 가까스로 연패를 피했다. 경기 후 김 감독은 “포기하지 않고 승점을 얻었고, 연패도 면했다. 체력적인 부담이 크다. 부상자도 많다”고 말했다. K리그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행편을 갖췄을 뿐더러 상당한 양질의 지원을 받아온 지금의 전북에는 그 어떤 것도 변명이 될 수 없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슈퍼매치 희비...‘5월 무패’ 수원, ‘10G 무승’ 서울

수원삼성, 29일 서울 3-0 격파 라이벌 팀의 극과 극 행보 관심

K리그1(1부) 수원 삼성이 K리그 통산 94번째 ‘슈퍼매치’에서도 저력을 발휘하며 환상적인 5월을 마무리했다.

수원은 2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1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FC서울을 3-0으로 격파했다. 전반 38분 김건희의 페널티킥(PK) 선제골, 후반 4분 김민우의 추가골, 후반 22분 민상기의 썬킥골을 묶어 완승을 거둔 수원은 9승6무4패, 승점 33으로 2위를 지켰다.

수원의 저력이 증명된 90분이었다. 좌우 날개 이기제-김태환의 측면 돌파는 위협적이었고, 꾸준히 출전 기회를 얻으면서 팀에 완전히 녹아든 투톱 제리치와 김건희

는 공격 2선 김민우의 지원사격 속에 서울 수비진을 농락했다. 김건희의 PK 찬스는 힘으로 돌파한 제리치가 유도했고, 김민우의 추가골에는 역습에서 서울 측면을 부순 김건희의 도움이 뒷받침됐다. 나상호가 부상으로 이탈한 서울은 0-1로 뒤진 전반 43분 팔로세비치의 슈팅 골대를 스친 것이 안타까웠을 뿐 시종 무기력했다.

극명히 다른 두 팀의 현주소가 확인됐다. 이날 경기까지 포함해 서울은 리그 9경기 연속 무승(3무6패)에다, K리그2(2부) 서울 이랜드와 FA컵 32강전 홈경기 0-1 패배까지 포함한 공식경기 10경기 무승으로 고개를 숙였다.

수원은 정반대다. 5월 리그 6경기에서 3승3무를 기록했고, FA컵 16강전 승부차기 승리에 이어 ‘슈퍼매치’까지 잡으며 상승세가 운이 아닌 실력임을 입증했다. 서



FC서울과 수원 삼성의 저지가 역전됐다. 올 시즌 수원은 ‘매탄소년단’을 앞세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반면 서울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급기야 2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K리그 통산 94번째 ‘슈퍼매치’에선 수원이 서울을 3-0으로 완파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울로 기운 듯하던 ‘슈퍼매치’ 통산 전적도 34승24무36패로 따라잡았다. 박건하 수원 감독은 “아직 전세가 역전된 것은 아니다.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소까지 감추진 않았다.

수원의 젊은 파들에 서울의 베테랑들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서울 벤치는 ‘나상

호 이탈’이란 변수에 대처하지 못했다. ‘슈퍼매치’에서 다득점 경기는 종종 나왔으나, 이처럼 일반적으로 기운 상황은 많지 않았다. 박진섭 서울 감독은 “(여름이적시장의) 보강 계획은 있는데 결정된 건 없다. 현 스쿼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남정현 기자

파투 결승골...대전하나, 이랜드 꺾고 2연승

K리그2(2부) 대전하나시리즈가 2연승을 달리며 K리그1(1부) 승격 희망을 한층 더 부풀렸다.

대전하나는 29일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1’ 1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서울 이랜드FC를 1-0으로 제압했다. 전반 34분 파투가 결승골을 뽑았다. 24일 부천FC와 홈경기(4-1)에 이어 2연

승을 신고한 대전하나는 7승3무4패, 승점 24로 선두권 싸움을 이어갔다. 반면 서울 이랜드는 주중 K리그1(1부) 강원FC와 FA컵 원정 16강전 여파 속에 최근 4경기 연속 무승(3무1패)에 빠지며 4승5무4패, 승점 17에 묶이면서 상위권 도약에 실패했다.

초반부터 팽팽한 접전이 펼쳐졌다. 탐색전 양상 속에서도 두 팀은 득점 찬스를 여

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균형이 깨진 것은 전반 34분이었다. 우즈베키스탄 미드필더 알리바예프가 상대 문전 정면에서 연결한 침투 패스를 파투가 침착한 오른발 슈트로 연결해 골네트를 흔들었다.

서울 이랜드에도 기회는 있었다. 후반 들어 김민균, 한의권 등을 투입해 공세를 시작한 서울 이랜드는 후반 추가시간 페널티킥 파울을 유도했다. 그러나 골 운이 없었다. 레안드로의 키이 골대를 맞고 땀기며 균형을 이루는 데 실패했다.

힘겨운 잠실 원정에서 승점 3을 획득한 것도 고무적이지만, 무실점이 특히 반갑다. 최근 실점이 부쩍 늘어나 걱정이 컸던 대전하나다. 고민 끝에 이민성 감독이 꺼내든 카드는 베테랑 수비수 이용희다. 대전하나의 뒷문은 더욱 단단해졌고, 안정감도 커졌다. 이 감독은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당장의 순위는 무의미하다. 점차 나아지고 있다. 우리의 경기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날 승리에 의미를 부여했다. 남정현 기자